

# “청정한 계행으로 동체대비 실천을...”

## 각 종단 신년 하례·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시작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이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년하례식과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신년 하례식을 병행했다. 하례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백가 바다를 건너려면 나침반이 중요하듯 종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행이 청정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스님은 또 “계행이 청정할 때 마음이 편하고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며, 부지런히 수행해 견성 성불해야 모든 것을 시범할 줄 아는 눈이 열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례식은 종정스님 현환, 총무원장스님 현다, 삼보전 통일, 종정교사, 총무원장 인사, 참사대중 맞절, 중앙신도회 회장단 삼배로 이어졌다. 또 이날 하례식에는 보성, 활안, 지중, 동준, 원명, 천운, 해정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과 교구본사 중앙신도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시무식을 병행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계오르지 않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현재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개인



불기 2551년 정해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5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거행됐다. 해인사=박재완 기자

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시무식을 통해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또 “경험과 규정에 근거하지만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관 스님은 “변화하는 나를 통해 혁신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중요한 만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종무원들의 교육 연수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4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각 기관장, 원로회의, 승정원, 교구 총무원장 스님, 종단 대중스님들 및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신년해례회를 병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종으로서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올해 종무행정은 서로를 위한 덕치행정을 펼쳐겠다”면서 “덕치행정을 하되 승단의 위계질서는 바로잡아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은 신년사에서 “전승관 건립으로 1954년 법난 이후 종단이 새 전기를 맞았다”며 “법음법패 등 1600년을 이어온 불교 전통의식을 보유한 유일한 종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위상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진각종, 총지중, 관음종, 조동종도 1월 4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김주일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 “조계종 마을 면세를...”

지관 스님 아시아 대사에 요청



아시아 페레라(Asitha Perera)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1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인사차 예방했다(사진).

지관 스님은 이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과 관련, 아시아 페레라 대사에 “공사비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를 면세해 달라”며 스리랑카 정부에 이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가세 부분과 관련, 아시아 페레라 대사는 “스리랑카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호법위원회 발족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지종풍에 위배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할 ‘호법위원회’를 3월 중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

호법위원회는 총무원장 직할 기구로 산하에 지방총무원 호법위원회를 두며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호법위원회는 특정 사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주일 기자

#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태고종 자문위원회 구성·학술세미나·해외홍보 주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 초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인 태고종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92회 정기 중앙총회에서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새해 종단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태고종은 올해 초부터 영산재와 관련된 학자와 행정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해 영산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 예산을 대폭 늘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산재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 무용제에 참가시킬 예정이다.

운산 스님은 신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영산재를 통해 태고종과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종단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2007년 새해 예산

을 지난해보다 2억 9000여만 원 늘어난 146억 2400여만 원으로 확정하고 교육, 포교, 복지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선암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태고총림 선암사법’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선암사 자율운영권 강화를 위해 선암사 재적승이 과반수로 구성된 총림총회를 구성할 것 △선암사 재적승 총회(전산대회)를 부활시켜 주지 및 총림총회의원을 선출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상월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다양

## 천태종, 유적 성역화·출판사업 등 추진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2011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가정’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가연 초에 발족된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은 지난해 12월 24·25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제 77차 정기총회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기획안을 승

인했다.

이에 따라 구성될 기념사업회는 상월대조사 유적 성역화사업, 학술출판 사업, 문화 예술사업, 홍보 기획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갈 집행위원단은 총무원 6부장, 종회의원, 감사위원, 종정 사서실장, 비구니 스

님, 전문분야의 재가불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기로 했다.

한편 종의회는 24일 공식적인 종의회 부의장 선출에 들어가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해 과반을 확보한 월산 스님을 새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종의회는 또 새해예산안을 심의, 총무원이 제출한 104억 9천여 만원에서 6억5천여만원이 삭감된 98억 3천 6백여 만원을 2007년 새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 동방불교대 신입생 모집

## 4개 학과 내달 7일까지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 종단의 선교육후득도 제도 시행에 맞춰 2월 7일까지 출가희망자에 한해 모집하는 승가학과 등 총 4개 학과에 걸쳐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불교학과와 승가학과(선교육과정)는 2년 과정으로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나눠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법패학과는 2년 과정의 정규반 00명을, 불교미술학과는 3년 과정의 정규반 00명을 모집한다. (02)745-2030 김주일 기자

# 승적증명서 전화로 발급해요

## 조계종 수요자 중심 종합민원서비스 2일부터

조계종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조계종은 1월 2일부터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종합민원실을 정식 오픈했다(사진).

이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승려증 분실재발급, 소속확인원, 재직증명원, 인감증명원) 및 승려증 재발급 업무가 통합돼 서비스가 진행된다.

특히 전화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



태고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설 및 사용안내도 받을 수 있다. 종합민원실 한편에서는 전화상담 봉사자들이 한국불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02)2011-1700 남동우 기자

# 소백산의 생태·환경가치 공개토론

##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 25일 개최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산업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백산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천태종 산하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스님, 이하 소백산지킴이)는 1월 25일 오후 2시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소백산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보전을 위한 역할 과제’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환경전문가 등이 소백산의 생태와 환경

을 살펴보고 지키고 보전해야 할 가치와 당위성, 소백산지킴이의 추진 방향 정립, 환경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성원 유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조우 상지대 교수와 김하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에는 조태제 한양대 교수, 정광진 환경참여연합 사무총장, 장용미 녹색연합 팀장, 노정호 우리무궁화사랑회 회장, 소백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김주일 기자

# 조계종 교육원, 연구원 공채

조계종 교육원은 <금강경>과 <반야심경> 통일 한글본 편찬을 위해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1명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불교학, 선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 목록을 첨부해 1월 20일까지 교육원(02-2011-1812)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도 한국고승사상서를 번역·출판하기 위해 연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30~45세 중 △불교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신도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 △영어로 한문에 능통하며 국제 감각을 갖춘 자 등이다. 1월 20일까지 사무국(ksmonk@buddhism.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1年

#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김영제

총무 임행주  
교무 윤갈웅  
재무 김호성  
부전 이성진 김탄성  
신도회장 김형대

정기법회안내  
●일시: 매월(양력)1,2일 오전 10시  
●장소: 삼광사 지관전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전화 051)808-7111~5 / 팩스 051)803-1332  
인터넷 삼광사 www.samkwangsa.or.kr

##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원각회

상임법사 마일운

회장 노기순(대행심)  
총무 조춘옥(금강심)  
교무 박경옥(문수행)  
원주 한금순(보현행)  
화주보살 김남순(여래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38번지 전화 02)392-5808 www.ilun.net